

본당 소식

2024년 6월 생활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 ♣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 오늘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신 박건욱 레오나르도, 이소현 엠마, 박이서 엘리사벳, 주진경 줄리아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앙 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새 영세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유럽 한인 사목자 회의

- 일시: 6월 3일-6일
- 장소: 베를린 한인성당

♣ 주일학교 2023-24 졸업식 및 종업식

- 일시: 6월 9일
- 장소: 밀라노 한인성당

♣ 모임/회의

- 청년구역 회의: 금일(2일), 미사 후
- 사목회의: 다음 주일(9일), 미사 후

♣ 봉사자

- 계단,화장실: 엄기용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15,60€ • 교무금 00,00€

전례 성가

입당 : 169 (사랑의 성사)
 봉헌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 : 499 (만찬의 신비여), 164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 :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전례 봉사

이번 주일(2일)	다음 주일(9일)
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2독서: 우윤정 마리아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변가인 헬레나	복 사: 이가은 마리아 판체아,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6월 2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전례

화답송



제1독서 (탈출기 24,3-8)

그 무렵 3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4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둘을 세웠다.

5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6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7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8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제2독서 (히브리서 9,11-15)

형제 여러분, 11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13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14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1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 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속가 <21절부터>

21. 천사의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4,12-16.22-26)

12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16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23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빛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거룩하게 지켜 주시고, 사제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심어 주시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검소하며 겸손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게 하소서.

2.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욕심과 이기심으로 평화를 잃은 저희를 굽어살피시어, 통회의 마음으로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굽어살피시어, 외로움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 잘 이겨 내게 하시고, 사회의 관심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 주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묵상하며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